

귀국 보고서

파견대학	HELP University
파견기간	19.08.09. ~ 19.12.18.
프로그램	학기제

1. 출국 전 준비사항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 유학생 보험 가입(19.08.08 ~ 19.12.19 -> 83,100원)

- 비자 : 출국 전 싱글 엔트리 비자를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하고, 말레이시아에 서는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돈을 지불하면 싱글 엔트리 비자는 발급 대행 가능.

(3) 항공권

저가항공사 에어아시아 이용. 출국 항공권 약 28만원(밸류 팩, 위탁 수하물 30kg), 귀국 항공권 약 22만원(위탁 수하물 40kg)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웬만한 건 말레이시아에서도 다 살 수 있고, HELP대학 네이버 카페에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짐을 꾸릴 수 있다.

실내는 에어컨 때문에 쌀쌀 하기 때문에 봄 가을용 외투를 챙겨가는 것이 좋고, 대부분 현금결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exk현금카드를 만들어 가서 돈을 찾아 쓰는 것이 좋다. 체크카드 결제 시에는 씨티 카드가 가장 수수료가 적다. exk카드와 씨티체크카드 두개의 카드 추천.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언어: 말레이시아는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의 세가지 언어를 사용. 기본은 영어. 그리고 학교는 그렇지 않지만, 생활하다 보면 말레이 특유의 억양 영어(끝에 -la, -na)를 사용하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알아듣기 힘들지만 생활하다 보면 적응된다. 학교수업은 모두 British accent.

문화: 무슬림이 약 50%, 힌두교, 불교와 기독교 등. 말레이 계는 모두 무슬림이기 때문에 히잡을 쓰고 다니는 여성을 흔히 볼 수 있다. 대부분 닭고기 음식이고,

돼지고기와 소고기 음식은 찾기가 힘들다. Halal음식이라고 하는, 무슬림을 배려한 음식을 파는 곳이 대부분. 물가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저렴한 편. 특히 식자재의 가격과 인건비가 낮다 보니, 식비 부담이 크지 않다.

나. 파견 대학

나-1. 대학 선택 이유

나의 경우에는 헬프 대학을 선택했다기 보단 말레이시아를 선택했다고 말하는 게 적절한 것 같다. 우연히 말레이시아에 사는 사람의 블로그를 보게 되었고, 말레이시아의 여유로운 분위기에 끌렸다. (와서 직접 겪어보니 좋은 점만은 아니었다.) 말레이시아에 가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만 하다, 교환학생 대학을 정할 때 말레이시아를 선택하였다. HELP대학교에 대해 찾아보니,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유명 사립대학이고, 동남아의 저렴한 물가도 선택 이유 중 하나이다.

나-2. 공항 - 학교

말레이시아에 입국하게 되면, 픽업 오피서를 만나 함께 이민국을 통과해야 함. 픽업 오피서가 기숙사 앞까지 데려다 주셨다.

기숙사에서 학교를 가기 위해선 걸어서 가거나 학교 셔틀버스를 타면 되고, 보통은 학교 셔틀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2~3분이면 학교에 도착. 걸어서는 10분~15분 정도.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수강신청) IEP 수업의 경우에는 첫 수업 날 application form을 나눠주고, 그걸 작성해서 제출. ADP수업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 온라인 신청은 newmypride라는 학생정보시스템으로 ADD와 DROP모두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application form을 작성하여 ADP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수업내용) SAP는 영어연수 프로그램으로, IEP와 ADP 두가지의 수업을 듣게 된다.

IEP - Intensive English Programme은 말그대로 영어 집중 프로그램으로, 주중 하루 4시간씩 Speaking, Grammar, Writing위주의 영어 수업이다. 우리나라 대학 강의 같지 않고, 활동 위주의 수업이 많아 부담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수업은 말레이 친구들과 함께 수업 듣는 것이 아닌, HELP대학으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정규 학기 입학 전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 듣는 수업이다. 따라서 보통 한국인을 제외하면 주로 중국인과 일본인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매주 화, 목 간단한 quiz와 listening, speaking, writing시험을 보고, 수업 종료 후에 Final Test를 치르게 된다. Final Test의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 시험 유형은 ILETS와 같다.

ADP - 무조건 두 과목을 들어야 하고, Basic English과목은 필수이다. Basic English은 한국인 교환학생을 위해 만든 수업이어서, 수강생은 모두 한국인. 교수

님 열정 넘치시고 과제 많고 시험도 어려웠다.

다른 한 과목은 선택할 수 있지만, College writing이 권장과목이고, 오전 IEP 수업 때문에,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기 힘들다.

College Writing은 native와 함께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부족한 영어실력을 배려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수업은 부담스럽지 않고, Essay작성 이론을 우선 배운 후, 교수님이 제시한 주제 몇가지 중 선택하여 작문하고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첨삭을 받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교수님이 꼼꼼하게 첨삭해주시지 않고, 개략적인 틀만 보는 것 같아서 아쉬웠다. 시험은 단기간 공부한다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유형이 아니었다.

나-4. 기숙사(홈스테이, 쉐어룸 등)

SAP교환학생은 모두 Lensa villa라는 숙소에서 머물게 된다. 5층짜리 건물이고 1층은 사무실 정수기 세탁 보관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5층을 기숙사로 사용. 남녀 층이 나누어져 있고 하나의 유닛은 거실과 3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래된 건물이고, 실내용 슬리퍼 필수. 방 매우 작음. 또, 차도 쪽을 바라보고 있는 방에 배정된다면 하루 종일 자동차 소음이 들린다. 대부분의 방에 개미가 있고, 바퀴벌레도 가끔 목격. 전기세는 유닛 별로 한달에 한번씩 내야하고, 생각보다 비싸다.

모든 유닛엔 주방이 있지만, 취사 도구는 unit4에만 있다. 직접 요리해 먹는 것을 좋아한다면 처음부터 그냥 취사도구가 있는 방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

※중요: 수질 문제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보다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필터가 있는 샤워기헤드와 필터가 필수이다. 심한 날에는 눈에 보일 정도로 노란 물이 나온다.

나-5. 교내·외 활동

- Local buddy: 국제 처에서 현지인 로컬 버디들과 1:1 혹은 1:2로 매칭 해주어서 노력하지 않고도 로컬 친구(중국계 말레이)를 사귄 수 있었다. 버디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고 호의적이다. 영어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기다려주어서 부담없이 대화하고 친해질 수 있었다.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 만약 Maxis Hotlink 유심을 구입했다면, Hotlink Red라는 어플을 이용하기. 쓸쓸한 바우처가 많다.
- 항상 학생증 지참하기. 학생증 할인이 되는 곳이 꽤 있다.
- 학교 앞 푸드 트럭 거리 음식이 모두 저렴하고 맛있다. 모두 먹어보는 걸 추천. 인기 음식은 버터치킨라이스(8RM). 식사는 5~15링깃사이에서 해결 가능.

- 학교 건물 Ground level 뒷문으로 나가면 작은 학교 식당이 있는데, 과일 주스는 대부분 생과일 착즙. 뷔페식 보다 메뉴를 주문해서 먹는 것을 추천한다.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말레이시아 페낭, 말라카, 코타키나발루, 태국 방콕, 싱가포르 등 여행.

항공권이 저렴해서 여행하기 좋고, 특히 싱가포르는 버스로도 다녀올 수 있다. 더 많은 곳을 여행하지 못해서 아쉽다.

쿠알라룸푸르 자체도 여행할 곳이 정말 많아서 학교 다니는 중에도 틈틈이 부지런히 여행을 다녀야 모든 곳을 다 여행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외 근교(푸트라자야, 쿠알라세랑고르, 겐팅하일랜드 등)도 추천한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어느 나라로 가게 되든, 교환학생은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꼭 도전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또, 교환학생 가서 영어를 배워야지 하는 생각보단, 한국에서 어느정도 영어를 공부하고 가는 것이 영어 실력 향상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영어공부도 충분히 하고 가세요!

5. 사진자료(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